

# 청소년의 동아리활동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위애림\* · 윤채호\*\* · 최정욱\*\* · 이응택\*\*\*

## Ⅰ 알기 쉬운 개요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도기로, 부모 중심의 관계에서 또래 중심의 관계로 전환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청소년은 또래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다양한 사회적 경험과 역동을 겪으며,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해 나간다. 기존의 일부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의 동아리활동 참여가 이러한 또래관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의 동아리활동이 또래관계에 어떠한 방식으로 기여하는지를 탐색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 동아리활동 경험은 자아존중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아존중감은 또래관계 형성에 중요한 매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양한 동아리활동을 경험한 청소년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았고, 이는 또래와의 긍정적인 관계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동아리활동은 여가 및 진로 탐색의 수단을 넘어, 자아존중감 발달과 건강한 또래관계 형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향후 청소년의 사회적 발달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동아리활동의 중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광주대학교 청소년교육·상담학과 대학원생, 제1저자

\*\* 광주대학교 청소년교육·상담학과 대학원생

\*\*\* 광주대학교 청소년교육·평생교육학과 교수, 교신저자, leeet@gwangju.ac.kr

투 고 일 / 2024. 12. 8.

심 사 일 / 2025. 3. 10.

심사완료일 / 2025. 3. 20.

## Ⅰ 초록

본 연구는 청소년기 동아리활동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동아리활동과 또래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KCYPS 2018) 초4 패널 중 5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연구대상은 2,311명으로 남학생은 1,155명, 여학생은 1,156명이었다. 분석은 동아리활동이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자아존중감은 동아리활동과 또래관계에서 매개효과를 지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때 분석은 Hayes Process Macro 4번 모델을 활용하여 검증하였으며, 매개효과 유의성은 Bootstrapping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매개변수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선정하여 통제변인을 투입하였고, 통제변인은 성별, 우울, 협동심, 사회적 위축, 부모양육태도 변인이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동아리활동은 또래관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 동아리활동 경험은 단순히 취미를 공유하는 차원을 넘어 청소년들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는 수단으로 또래관계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청소년 동아리활동과 또래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매개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기의 동아리활동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고, 성취감을 통해 자신감을 획득하여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증진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활동이다. 이를 통해 동아리활동이 또래관계 형성에도 자아존중감을 매개효과로 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기 원만한 또래관계를 위해 동아리활동의 중요성을 다방면으로 제시하였고, 거시적 관점에서 청소년 동아리활동에 대한 지도 관리 지원체계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 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동아리활동, 또래관계, 자아존중감, KCYPS 2018

## I. 서 론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는 시기이다.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사회구성원이 되기 위해 많은 변화를 받아들이는 시기이기도 하다. 청소년기 대인관계는 부모에서 또래관계로 전환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 시기에는 비슷한 연령의 또래와 소속감 그리고 공감대 형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김금순, 1997). 친밀한 또래는 어려움과 문제상황에서 서로 도움을 제공하고(오승아, 유준호, 2017) 지지해주며,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한다(정영자, 이지혜, 2023). 더불어 긍정적인 또래관계는 행복감을 증진시키고, 자신감, 자기통제, 의사소통 향상에 효과적이며(장영애, 이영자, 2015) 우울, 공격성, 회피, 인터넷 게임중독 등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킨다(김은진, 이정윤, 2009; 유비, 2013). 즉, 청소년기의 또래는 심리적 안정감과 사회성 발달에 효과적일 뿐 아니라 자아정체감 형성과 건강한 사회적 관계 형성에 긍정적인 요인이다(안미숙, 2017; 홍경자, 2004; Bartko & Eccles, 2003; Gorrese & Ruggieri, 2013).

또래와 친밀하고 지지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활동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많은 선행연구에는 청소년기 또래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활동이 동아리활동이라고 밝히고 있다(강운영, 2010; 김성규, 2011; 박준기, 2021; 정영자, 이지혜, 2023; 최형임, 이재성, 문영경, 2012; Blomfield & Barber, 2010). 동아리활동은 같은 취미 또는 비슷한 관심사를 지닌 청소년 간의 어울림의 장이다. 성인과는 달리 또래와 즐길 수 있는 놀거리에 제약이 많은 청소년기는 동아리활동을 통해 또래와 소통하고 여가생활의 기회를 갖는다. 동아리활동은 관심사가 비슷한 또래 간의 사교 모임으로 출발하지만 활동이 증가할수록 집단 구성원과의 애착관계가 형성되고, 또래와 다양한 역동을 경험하면서 자아정체성(안미숙, 2017)과 자신감을 형성한다(허철수, 강옥련, 2010). 또한 성별, 신분, 성적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동아리활동이며(김미연, 김정해, 2013), 친구 또는 선후배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의사소통 능력 향상, 타인과의 상호작용, 관계를 맺는 즐거움을 경험한다(임희진, 문호영, 정정호, 김평화, 2018). 청소년기 동아리활동은 사회·정서적 욕구를 만족시키고, 사회성 발달을 유도하여 사회화에 필요한 행동양식을 배우고 형성하도록 한다(우지윤, 2013).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동아리활동이 청소년기의 또래관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해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리활동은 여가활동(정현태, 최혜련, 최장호, 2011)과 진로개발활동(손병덕, 김민선, 허계형, 2020)의 일환으로 인식되어 동아리활동이 청소년기 또래관계에 효과적인지를 밝힌 연구는 미비하다.

더불어, 동아리활동이 또래관계 증진에 효과적인 이유를 찾아야 한다. 동아리활동과 또래관계의 구조적인 특성을 파악한다면, 동아리활동이 또래관계에 도움이 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변인 중에서 자아존중감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자아존중감은 개인 내적 변인으로 자기 가치에 대한 스스로의 지각을 의미하고(Rosenberg, 1965), 자아존중감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형성한다(임효진, 최희철, 황매향, 2017). 자아존중감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소속감을 형성하여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Rosenberg, 1965). 집단 구성원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 집단에 일원이 되어졌다는 수용이 소속감이며, 이러한 소속감은 긍정적인 자기평가에 직결된다. 동아리활동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활동이다. 혼자하는 활동이 아닌 동아리 구성원과 함께 어울리는 집단활동의 성격을 지닌다. 집단활동의 성격을 지닌 동아리활동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김성규, 2011; 백선희, 최원석, 2021; 이인순, 2006; 장선경, 2011). 그리고 많은 연구에서도 이를 증명하고 있다. 김수진과 이윤희(2022) 연구에 따르면, 동아리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은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고, 대학생의 여가 동아리활동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설명하였다(김송희, 2011).

또한 자아존중감은 타인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권혜진, 성미영, 2014; 이보람, 박혜준, 2016; 조선영, 2017). 그 이유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 수용과 존중만이 아니라 타인 존중과 수용이 높기 때문이다(황재원, 고흥월, 2023).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은 대인관계에서 소외되기 쉬우며 대인관계 형성에서도 어려움을 겪지만(박선영, 도현심, 1998)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들은 또래와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이형실, 2014). 이처럼 자아존중감은 집단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달하기도 하지만 높은 자아존중감은 대인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두 변인의 관계를 자아존중감으로 설명한 연구는 많지 않다. 동아리활동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와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의 관련성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조적 특징을 밝힌 연구는 부족하다. 특히 청소년기의 동아리활동이 또래관계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하고 있으나 이러한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파악하여 동아리활동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다각적인 경로를 탐색하여 동아리활동의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와 또래관계 개선 및 증진을 위한 동아리활동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동아리활동이 또래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청소년 동아리활동과 또래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매개효과를 지니는가?

## II. 이론적 배경

### 1. 동아리활동과 또래관계

또래와 관계를 맺고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며 공동체에서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활동으로는 동아리활동이 있으며, 이는 청소년이 자율적이며 주도적으로 본인의 관심사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교육이자 활동으로 여겨지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청소년의 동아리활동이 적극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것은 교내에서는 2009년 창의적 체험활동과 2013년 자유학기제가 있으며, 교외에서는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된 1991년부터 청소년 단체와 청소년 수련시설을 주축으로 동아리 사업이 각 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동아리활동은 청소년이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더 넓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기회를 제공한다. 또래 간 협업과 공정한 경쟁을 학습함으로써, 다양한 관점에서 교육적 효과를 지니고 있는(박준기, 2021; Dawes, Pollack & Sada, 2017) 동아리활동은 또래 간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의 장으로서 중요하며 또래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정영자, 이지혜, 2023; 최형임 외, 2012; Loder & Hirsch 2003; Kort-Butler, 2012). 김성규(2011)의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기 동아리활동은 자아개념 중 친구 자아개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동아리활동이 긍정적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강운영, 2010; 최형임 외, 2012). 특히 동아리 참여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며(김영미, 한혜원, 2010), 어학연수, 봉사활동, 인턴십 등의 비교과 활동보다 동아리활동이 대인관계 역량에 중요한 변인으로 밝혔다(백상현, 2020).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종합했을 때, 청소년기 동아리활동은 또래관계 증진에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의 동아리활동이 또래관계 증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 2. 동아리활동과 자아존중감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은 청소년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신을 믿는 것으로 이 시기에는 자아에 대해 인식과 평가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신민철, 전동일, 2023). 자아존중감은 청소년기 신체 변화에 대한 대응, 사고의 발달, 또래 및 대인관계 향상, 자신감 및 사회성 향상 등 다양한 문제해결과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성이 높아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요인으로 설명된다(정병삼, 2010).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형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이 있으나 청소년기의 체험활동은 자아존중감 증진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응택, 오승근, 2021; Knifsend, Green, & Clifford, 2020; Fredricks & Eccles, 2006). 그중에서도 동아리활동과 자아존중감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한유경, 정성수, 김성기, 정제영, 2012). 청소년들은 또래와 함께 동아리활동을 직접 운영하고, 주도적으로 청소년 동아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게 된다(송수지, 김정민, 남궁지영, 2012). 또한 동아리활동과 같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장선경, 2011). 더불어 청소년들은 동아리활동을 통해 자아개발, 개인의 능력을 확대하는 효과를 얻는다(이미자, 2012).

최동성(2003)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동아리활동 참여는 동아리 유형에 상관없이 자아존중감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며, 주당 3~4회 정도의 적당한 동아리 활동이 자아존중감 향상에 상대적으로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김수진과 이윤희(2022) 연구에 따르면, 중학생 시기의 동아리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이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보다 자아존중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개인적 특성을 통제한 상황에서도 동아리활동이 자아존중감에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국외 연구에서도 학교 동아리활동은 자아존중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Kort-Butler & Hagewen, 2010).

결론적으로 청소년활동은 청소년 자신의 부족한 역량을 진단하고 이를 보완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이시연, 2019). 또한 청소년활동은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끼고 새로운 것을 알게 되면서 자신의 가치를 새롭게 평가하거나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높은 자아존중감 형성에 도움이 된다(류시영, 강방훈, 2012).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통해 청소년기의 동아리활동은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활동 과정에서 소소한 성취감을 통해 자신감을 형성하면서 자아존중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3.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

또래란 나이, 성, 학년 수준에서 비슷한 특성을 보이고 정신적, 신체적 발달과 행동이 유사한 청소년들로, 사회적으로 동일시되는 대상으로 정의하며(이호선, 2001) 최근에는 행동의 복합성이 동일한 수준에서 상호 작용하는 사회적으로 동등한 존재로서 정의하기도 한다(유윤아, 2006). 다른 연구자들은 또래관계를 신체적 정신적 발달이 비슷하며 사회적으로 동일시되어 상호작용할 수 있는 대상, 수평적인 관계로 말한다(정미선, 2010). 이러한 정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청소년기 또래는 유일한 수평적인 대상이며, 동일시의 기준으로 행동의 준거적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청소년기 긍정적인 또래관계 형성은 자아존중감과 높은 관련성을 지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자아존중감이 긍정적으로 형성된 청소년은 자신의 삶에 만족감을 느끼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원만한 또래관계를 형성하여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김도화, 이주미, 2022; 김민정, 2015). 반면에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은 대인관계에서 소외되기 쉬우며 대인관계 형성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박선영, 도현심, 1998). 장혜림과 이래혁(2023)은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형성되면 이를 통해 또래애착이 높아지는 것으로 설명하였고, 김태은(2023)은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으로 부정적인 자아존중감이 형성되면, 이로 인해 또래애착이 부정적이라고 설명하였다.

자아존중감이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지만, 반대로, 또래관계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소개되기도 한다. 차정원과 이형실(2014)은 중학생 시기의 또래환경은 자아존중감 형성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하였고, 임효진 외(2017)도 또래애착이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밝혔다. 그러나 임효진 외(2017)는 또래애착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자아존중감도 또래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는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의 인과적 관계는 명확하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양방향을 고려하여 연구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보람과 박혜준(2016)은 또래관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보다 자아존중감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설명력이 더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근거에 따라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을 관심변인으로 설정하여 자아존중감이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 4. 통제변인

본 연구는 동아리활동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순수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매개변인인 자아존중감과 종속변인인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통제변인으로 선정하고자 하였다. 또래관계와 자아존중감 선행연구에서 주로 연구되는 변인은 다음과 같다. 성별에 따라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의 차이를 밝힌 연구(백경임, 서동인, 1993; 송순, 오선영, 2014; 하문선, 2018), 우울과 자아존중감, 우울과 또래관계의 관련성을 보고한 선행연구(김은예, 한수연, 박용한, 2023; 안은미, 이정애, 정익중, 2019; 조춘범, 김동기, 2010; 추상엽, 임성문, 2010)를 토대로 성별과 우울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협동심이 또래관계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임다혜, 김춘경, 2023; 장성민, 2023) 협동심을 통제변인으로 투입

하였다. 청소년들은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경계심이나 사회적 평가 상황에서 느끼는 스스로의 인식, 회피 등 환경으로 인한 사회적 위축감이 높으면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고, 또래관계에도 부정적이라는 연구(김은경, 정윤희, 조대연, 2022; 신유림, 2007; 이은정, 정은정, 2022; 최정아, 2014)를 기반으로 사회적 위축도 통제변인으로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기 발달에 있어 부모의 양육태도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였고, 부모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가영희, 조민자, 임성우, 2008; 박균달, 이수영, 2017; 송수정, 2022) 부모양육태도까지 통제변인으로 투입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활용된 통제변인은 성별, 우울, 협동심, 사회적 위축 그리고 부모양육태도이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동아리활동 참여 경험이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며,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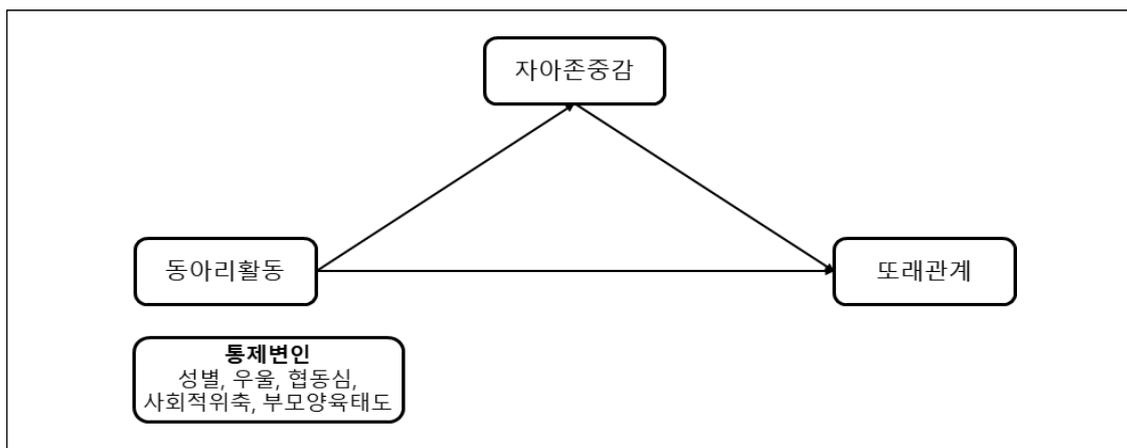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동아리활동이 자아존중감을 매개하여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8(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 이하 KCYPS 2018) 초등학교 4학년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초4 패널은 2018년 1차 조사를 진행하였고, 5차년도 조사까지 이루어졌다. 따라서 2022년도에 조사한 자료는 중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대상으로 본 연구는 중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5차년도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독립변인, 매개변인, 종속변인에 걸쳐서 제외된 2,311명을 선정하였으며, 여학생 1,156명(50%), 남학생 1,155명(50%)로 나타났다.

## 3. 측정도구

### 1) 또래관계

또래관계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배성만, 홍지영, 현명호(2015)가 개발 및 타당화한 또래관계 질 척도를 사용하였다. 문항은 총 13문항으로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친구들에게 내 비밀을 이야기할 수 있다’, ‘친구들은 나를 좋아하고 잘 따른다’ 등의 내용이다. 또한 13문항 중 5개는 부정적인 문항으로 역코딩을 하였다. 점수 구성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관계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alpha$ ) 계수는 [.837]이다.

### 2) 동아리활동

독립변인인 청소년 동아리활동은 교내 동아리활동과 교외 동아리활동을 묻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원점수 척도는 교내·외 동아리 연간 참여 횟수로 구성되어 참여 ‘없음’ 1점, ‘1-2회’ 2점, ‘3-4회’ 3점, ‘5회 이상’ 4점으로 구성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참여한 적 없음’과 ‘참여한 적 있음’으로 더미처리하였다. 따라서 교내·외 동아리활동에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으면 0점, 참여한 적이 있으면 1점으로 재구성하였다. 교내·외 동아리활동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1,554명(67.2%),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757명(32.8%)로 나타났다.

### 3) 자아존중감(매개변인)

자아존중감 척도는 Rosenberg(1965)가 개발하고, 김지영 외(2010)가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은 총 10문항으로 긍정적 자기인식 5문항과 부정적 자기인식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은 ‘나는 내가 장점이 많다고 느낀다’, ‘나는 나에게 만족한다’, ‘때때로 나는 쓸모없는 존재로 느껴진다’, ‘나는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등으로 부정적 자기인식 5문항은 역코딩하여 분석하였다. 점수구성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하고, 자아존중감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계수는 [.812]로 확인되었다.

### 4) 통제변인

본 연구의 통제변인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자아존중감(매개변인)과 또래관계(종속변인)에 관련된 변인으로 선정하였다. 통제변인은 성별, 우울, 협동심, 사회적 위축, 부모양육태도로 선정했으며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여자=0, 남자=1로 코딩하여 더미변수로 처리하였다. 우울은 10문항, 협동심은 14문항, 사회적 위축은 5문항, 부모양육태도는 긍정적 양육태도에 해당하는 12문항을 사용하였다. 점수는 1점에서 4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변인의 의미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 4. 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25.0과 Hayes(2017)의 SPSS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빈도분석을 진행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의 동아리활동 참여, 또래관계, 자아존중감 수준 파악을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셋째,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문항 내적 신뢰도(Cronbach’s  $\alpha$ )를 산출하였다. 넷째, 청소년 동아리활동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두 변인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Hayes(2017)의 Process Macro의 Model 4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다섯째,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부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기술통계

각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확인하였으며, 결과는 표 1과 같다. 청소년 동아리활동의 평균(참여자의 비율)은 .328(32.8%), 자아존중감의 평균(표준편차)은 2.903(.431) 또래관계의 평균(표준편차) 3.057(.404)로 확인되었다. 왜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과 왜도 2이하 첨도는 4이하로 정규성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1  
주요변인의 기술통계

	구분	N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통 계 변 인	성별(남=1)	2,311	0.00	1.00	.500	.500	.001	-2.002
	우울	2,311	1.00	4.00	1.754	.530	.638	.385
	협동심	2,311	1.00	4.00	2.904	.509	-.398	.897
	사회적위축	2,311	1.00	4.00	2.080	.680	.430	-.205
	부모양육태도	2,311	1.00	4.00	3.119	.460	-.156	.250
주 요 변 인	동아리활동(유=1)	2,311	0.00	1.00	.328	.469	.735	-1.461
	자아존중감	2,311	1.20	4.00	2.903	.431	.034	.499
	또래관계	2,311	1.31	4.00	3.057	.404	.086	-.110

\* $p < .05$ , \*\* $p < .01$ , \*\*\* $p < .001$

### 2. 상관관계

주요변인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동아리활동과 자아존중감은 정적상관으로 나타났고, 동아리활동과 또래관계도 정적상관으로 확인되었다.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 또한 정적상관으로 나타났다.

표 2  
주요변인 간 상관계수

구분	성별	우울	협동심	사회적 위축	부모 양육태도	동아리활 동	자아 존중감	또래관계
통 제 변 인	성별(남=1)	1.000						
	우울	-.064**	1.000					
	협동심	-.084***	-.285***	1.000				
	사회적위축	-.054*	.544***	-.264***	1.000			
	부모양육태도	-.015	-.393***	.453***	-.139***	1.000		
동아리활동(유=1)	-.045*	.021	.089***	.067***	.081***	1.000		
자아존중감	.025	-.575***	.397***	-.278***	.491***	.094***	1.000	
또래관계	-.106**	-.393***	.488***	-.285***	.455***	.079***	.438***	1.000

\* $p < .05$ , \*\* $p < .01$ , \*\*\* $p < .001$

### 3.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 동아리활동과 또래관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 Process Macro 4번 모델을 사용하였다. 먼저, 청소년 동아리활동이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동아리활동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모형의 설명력은 44%로 나타났고, 회귀식은  $F=301.455(p < .001)$ 로 확인되었다. 통제변인은 성별을 제외한 우울, 협동심, 사회적 위축, 부모양육태도는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독립변인인 동아리활동은 자아존중감( $\beta=.067$ ,  $p < .001$ )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기 동아리활동은 자아존중감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다음은 동아리활동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고, 연구모형의 설명력은 35.8%, 회귀식은  $F=214.420(p < .001)$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각 변인의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통제변인 중 성별, 우울, 협동심, 사회적위축, 부모양육태도는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독립변인인 동아리활동은 또래관계( $\beta=.082$ ,  $p < .001$ )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동아리활동 경험은 또래관계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  
동아리활동이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분석

독립		종속: 자아존중감				종속: 또래관계			
		B	S.E	$\beta$	t	B	S.E	$\beta$	t
통 제 변 인	성별(남=1)	.015	.014	.018	1.142	-.074	.014	-.092	-5.451***
	우울	-.373	.016	-.459	-22.789***	-.134	.014	-.176	-8.164***
	협동심	.141	.015	.166	9.169***	.236	.015	.297	15.333***
	사회적위축	.029	.012	.045	2.383*	-.051	.012	-.086	-4.199***
	부모양육태도	.221	.017	.236	12.663***	.207	.018	.235	11.764***
동아리활동(유=1)		.062	.014	.067	4.265***	.033	.015	.082	2.293*
$R^2$		.440				.358			
F		301.455***				214.420***			

\* $p < .05$ , \*\* $p < .01$ , \*\*\* $p < .001$

다음으로 청소년 동아리활동과 자아존중감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통제변인을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형의 설명력은 36.9%로 나타났고, 회귀식은  $F=192.559$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각 변인의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통제변인 중 성별, 우울, 협동심, 사회적 위축, 부모양육태도는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별, 우울, 사회적 위축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부모양육태도와 협동심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립변인인 동아리활동은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매개변인인 자아존중감은 또래관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을 동시에 투입했을 때 독립변인인 동아리활동은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동아리활동과 자아존중감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분석

독립변인		B	S.E	$\beta$	t	$R^2$	F
통 제 변 인	성별(남=1)	-.076	.014	-.094	-5.645***	.369	192.559***
	우울	-.085	.018	-.112	-4.732***		
	협동심	.218	.016	.274	14.004***		
	사회적위축	-.055	.012	-.092	-4.542***		
	부모양육태도	.178	.018	.202	9.861***		
동아리활동(유=1)		.025	.014	.062	1.745		
자아존중감		.131	.021	.139	6.305***		

\* $p < .05$ , \*\* $p < .01$ , \*\*\* $p < .001$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동아리활동은 자아존중감을 매개하여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부스트래핑(5,000)을 실시하였고, 분석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간접효과(표준화)는 .008(.020)로 나타났고, 부스트래핑의 하한값과 상한값이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따라서 청소년기 동아리활동 경험은 자아존중감을 매개하여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경로	B	$\beta$	Bootstrap 95%	
			하한값	상한값
동아리활동 → 자아존중감 → 또래관계	.008	.020	.009	.033

\* $p < .05$ , \*\* $p < .01$ ,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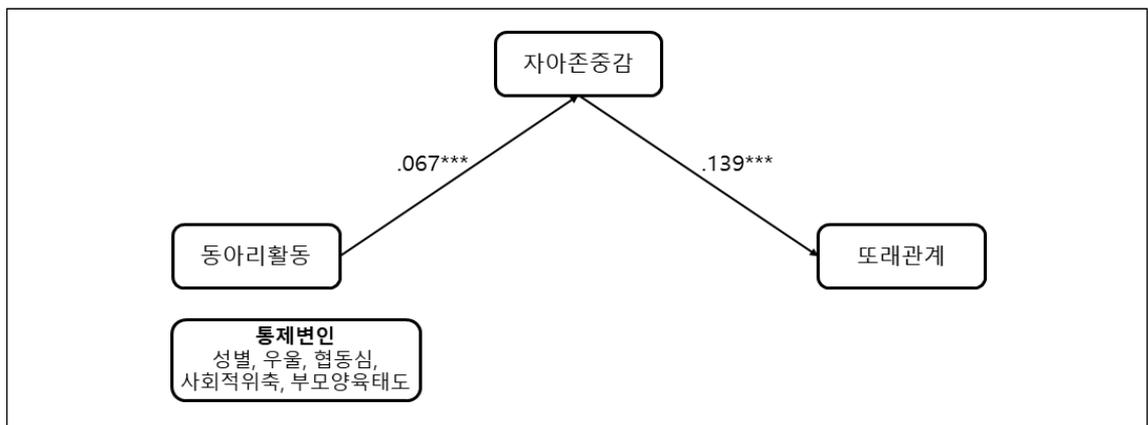


그림 2. 최종모형

##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청소년기 동아리활동 경험이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두 변인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효과를 지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집 및 관리하고 있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8, 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의 5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아리활동 경험은 또래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동아리활동 참여가 또래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강운영,

2010; 김성규, 2011; 최형임 외, 2012)와 일치하며, 대학생의 동아리활동과 대인관계 역량을 검증한 연구(백상현, 2020)와도 같은 결과로 확인되었다. 즉, 청소년기 동아리활동은 또래관계 증진에 효과적이라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동아리활동은 대학 및 학교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와도 일맥상통한다(김미연, 김정해, 2013; 민정욱, 이연중, 2018). 이정민과 남아영(2019)은 학교 부적응 청소년의 대부분이 학교 내·외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맺기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밝혔으며, 또래와의 관계 맺기는 학교 분위기, 학교 규칙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학교부적응을 초래한다고 보고하였다. 청소년기 또래관계는 사회적 관계 형성뿐 아니라 학교적응과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동아리활동은 또래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대인관계 회복 그리고 적응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또래 간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위해 동아리활동을 운영한다면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는 데 유리한 환경이 될 수 있다. 일부 연구에서 동아리활동은 학교폭력 예방차원에서 지원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김선희, 권민정, 2013), 또래관계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집단활동 참여는 그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정민, 2017).

동아리활동은 단순히 취미를 공유하는 차원을 넘어, 청소년들이 서로의 차이를 이해 및 존중하고, 동아리 구성원과의 협력을 위해 다양한 역동과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는 수단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동아리활동은 진로개발에 필요한 활동 또는 여가활동의 방편으로만 인식되어 왔다. 김한솔과 장여옥(2019)은 지속적인 동아리활동 경험은 진로역량보다 협업능력에 영향을 미치며, 손병덕 외(2020)는 동아리활동의 주요성으로 진로결정과 더불어 교우 및 친구관계 형성이라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동아리활동은 여가활동 또는 진로개발 활동과 함께 또래관계 형성 및 개선을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둘째, 청소년 동아리활동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또래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결과는 동아리활동이 협동심과 공동체의식에 국한되지 않고 심리·정서적인 변인에 의해서 또래관계를 설명한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동아리활동은 또래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존중감을 완전매개하여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아리활동은 비슷한 관심과 주제를 지닌 청소년들의 집단활동이다. 그리고 어떤 특성의 주제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스포츠, 밴드, 댄스, 과학, 독서, 봉사 등 다양한 형태로 동아리활동이 전개된다. 이는 비슷한 주제와 관심을 지닌 청소년들 간의 만남으로 또래 간의 라포형성이 잘 되며, 또래 간 상호지지적인 모습 그리고 동아리활동을 통한 성취감을 경험하게 된다. 백정민, 구남호(2017)는 후기 청소년의 응원동아리 경험은 그들만의 독특한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타 대학 그리고 타 지역의 청소년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된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응원 관련 공연이나 경진대회

참여는 그들이 자부심을 획득하는 기회라고 제시하였다. 권유지, 윤성욱, 이효녕(2024)은 중학생의 과학 동아리활동은 과학 관련 지식의 부재로 초반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후에는 자신감과 성취감을 경험하면서 성공의 기쁨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처럼 동아리활동은 지속적인 발전 목표를 수립하고(Chapin, Deans & Fabris, 2019), 그 목표 달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함으로써 자아존중감 향상에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종합적인 자기 평가이지만 타인에 기반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사회적인 인정과 성공적인 경험은 자아존중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한다(Bailey, 2003). 즉, 청소년기 동아리활동은 다양한 경험의 장이며, 성취감을 통해 자신감을 획득하여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또래관계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동아리 활동의 결과물이 정기적으로 외부에 공유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전시회, 발표회, 공연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활동 성과를 사람들에게 알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성취감을 경험한다면 자아존중감 발달과 또래관계에 긍정적일 수 있다. 또한 동아리별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상장, 소정의 선물, 기념 행사와 같은 강화물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자신의 성취를 인식하고 자아존중감을 고취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한 결론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기 동아리활동은 여가 및 진로개발과 더불어 또래관계 증진에 효과적임을 밝혔다. 동아리활동은 소통의 장으로 청소년의 또래관계 증진에 도움이 된다. 이에 동아리활동이 다른 동아리와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김영기, 정태성, 2022) 다른 학교나 지역의 동아리와 교류하여 새로운 또래와의 만남을 유도하고,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동아리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둘째, 동아리활동은 또래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자아존중감을 매개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동아리활동은 타인으로부터의 지지와 작은 성공적 경험을 토대로 자아존중감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여 또래관계에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동아리활동 운영 담당자는 청소년이 동아리활동을 통해 작고 소소한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조직적인 활동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동아리 구성원 간의 지지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도 및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최혜림, 홍혜인, 김훈호, 2019). 일부 연구에서 동아리활동이 비체계적으로 운영되며, 동아리활동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조수영, 2015). 그러한 원인 중 하나가 관리 및 감독의 소홀이다. 동아리활동은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자치활동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어른들의 지도와 감독이 절실함을 의미한다. 또한 동아리활동은 청소년기 또래관계 형성에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청소년 동아리지원사업 전체 예산을 전액 삭감한 실정이다. 이는 결국 청소년들이 동아리활동을 하기 위한 환경조차 조성되지 않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으므로 국가차원에

서 동아리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겠다(김남호, 2024).

이러한 의의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KCYPS 2018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하였으나 횡단적인 특성만을 고려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후 연구에서는 종단적 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연구 수행이 필요하다. 둘째, 동아리활동 유형, 참여 횟수 및 빈도, 참여 시간 등 동아리활동 효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요인들을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후속 연구에서 동아리활동의 구체적인 효과분석이 진행된다면 동아리활동 정책개발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 참고문헌

- 가영희, 조민자, 임성우 (2008).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및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 **청소년시설환경**, 6(4), 31-42.
- 강운영 (2010). **스포츠동아리활동 참여 만족이 교우관계 및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교육과학기술부 (2009). 고시 제-2009-41호(2009.12.23). **2009 개정교육과정 총론**. <https://www.ncic.re.kr/nation.dwn.ogf.inventoryList.do?orgAttNo=10000078#>. (2009. 12.23.인출)
- 권유지, 윤성욱, 이효녕 (2024). 중학생의 AI 융합교육 기반 과학 동아리 활동 경험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교사교육연구**, 63(4), 580-600.
- 권혜진, 성미영 (2014).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또래애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Human Ecology Research**, 52(4), 395-403. doi:10.6115/fer.2014.034.
- 김금순 (1997). **학교생활 부적응 여중학생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학교사회사업 실천**. 경성대학교 정책정보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남호. (2024). 청소년예산 축소가 청소년활동 현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31(9), 309-331. doi:10.21509/kjys.2024.09.31.9.309.
- 김도화, 이주미 (2022). 중학생의 또래관계와 행복의 관계: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교육공동체연구와실천**, 4(3), 71-89. doi:10.23108/decrc.2022.4.3.71.
- 김미연, 김정해 (2013). 청소년기의 동아리활동 경험이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K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청소년 문화포럼**, 33, 40-61.
- 김민정 (2015)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공감능력 및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선희, 권민정. (2013).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경험 탐색.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20(1), 63-83.
- 김성규 (2011). **동아리활동이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과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 경운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송희 (2011). 한-중 대학생의 여가동아리 활동 참여에 따른 삶의 만족의 구조모형 분석. **여가학연구**, 8(3), 43-74.
- 김수진, 이윤희 (2022). 중학생의 학생활동(봉사, 동아리) 참여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교육과학연구**, 24(4), 21-43. doi:10.15564/jeju.2022.12.24.4.21.

- 김영기, 정태성 (2022). 방과후 청소년 교류활동 참여도와 청소년활동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청소년활동 지원정도의 매개효과. **방과후학교연구**, 9(1), 143-159. doi:10.54949/jasr.2022.9.1.143.
- 김영미, 한혜원 (2010). 대학생의 교내 동아리 여가활동이 교우관계와 조직동일시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4(2), 35-46.
- 김은경, 정윤희, 조대연 (2022).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 사회적위축, 교사관계, 삶의 만족도 간의 구조적 관계: 다문화가족정책 지원 경험 유·무에 따른 다집단분석. **교육문화연구**, 28(4), 303-327. doi:10.24159/joec.2022.28.4.303.
- 김은예, 한수연, 박용한 (2023). 우울, 친구관계, 학업 무기력 간의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능력의 조정된 매개효과. **한국청소년연구**, 34(4), 193-216. doi:10.14816/sky.2023.34.4.193.
- 김은진, 이정운 (2009). 부모와의 애착과 청소년의 또래관계 : 우울증상 및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 **청소년상담연구**, 17(2), 55-68. doi:10.35151/kyci.2009.17.2.004
- 김지영, 이형실 (2010). 청소년의 가족 및 또래 요인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2(1), 21-32.
- 김태은 (2023).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초등학교 6학년생의 진로성숙도 간 관계: 자아존중감과 또래애착의 순차적 매개효과. **청소년시설환경**, 21(3), 43-52. doi:10.55063/KIYFE.2023.21.3.5.
- 김한솔, 장여옥 (2019). 자율동아리활동 참여특성에 따른 청소년활동 핵심역량 차이분석. **한국청소년활동연구**, 5(3), 5-22. doi:10.36697/skya.2019.5.3.5.
- 류시영, 강방훈 (2012). 청소년의 체험활동 만족과 자아존중감, 행복감 간의 관계: 아시아태평양잼버리 참가자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3(4), 27-50.
- 민정옥, 이연중 (2018). 지방 대학생의 스포츠 동아리 프로그램이 학교적응성 및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스포츠학회**, 16(1), 139-146.
- 박균달, 이수영 (2017).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경영연구**, 4(2), 249-270. doi:10.35185/KJET.16.1.3.
- 박선영, 도현심 (1998). 가족기능 및 자아존중감과 청소년의 외로움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19(1), 229-224.
- 박준기 (2021). **청소년의 자율동아리활동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배성만, 홍지영, 현명호. (2015). 청소년 또래관계 질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청소년학연구**, 22(5), 325-344.
- 백경임, 서동인 (1993). 성별과 학년에 따른 청소년의 친구관계. **한국청소년연구**, 15, 45-63.
- 백상현 (2020). 대학생의 비교과 교육 활동 경험이 대인관계역량에 미치는 영향. **교양 교육연구**, 14(1), 259-283.

- 백선희, 최원석 (2021). 중학생의 동아리활동 경험에 대한 사례 연구. **홀리스틱융합교육연구**, 25(4), 155-179. doi:10.35184/kshce.2021.25.4.155.
- 백정민, 구남호 (2017). 대학 응원동아리의 활동과 의미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30(3), 69-87. doi:10.22173/jksss.2017.30.3.69.
- 손병덕, 김민선, 허계형 (2020). 토픽분석을 활용한 진로개발활동으로서의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사업의 효과성 연구. **청소년학연구**, 27(5), 253-275. doi:10.21509/kjys.2020.05.27.5.253.
- 송수정 (2022).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공격성이 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 중심교과교육연구**, 22(22), 113-124. doi:10.22251/jlcci.2022.22.22.113.
- 송수지, 김정민, 남궁지영 (2012). 청소년 동아리활동경험이 자아개념 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3(1), 121-147.
- 송순, 오선영 (2014).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 문제행동 및 모-자녀간 의사소통이 학교 생활에 미치는 영향.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8(1), 93-103. doi:10.21184/jkeia.2014.02.8.0.93.
- 신민철, 전동일 (2023). 청소년의 우울, 친구관계, 자아존중감의 종단적 인과관계. **인문사회과학연구**, 31(2), 76-92. doi:10.22924/jhss.31.2.202305.004.
- 신유림 (2007). 학령기 아동의 사회적 위축성과 친구관계. **아동학회지**, 28(5), 193-207.
- 안미숙 (2017). 불안정 애착 청소년의 또래관계 향상을 위한 콜라주미술치료 사례연구. **임상미술심리연구**, 7(1), 121-143. doi:10.34167/cliart.7.1.201706.121.
- 안은미, 이정애, 정익중 (2019). 우울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가정외보호 여부와 또래애착의 조절된 매개효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45, 209-230. doi:10.20993/jSSW.45.9.
- 오승아, 유준호 (2017). 우리나라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방식, 청소년활동, 또래애착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보육학회지**, 26(3), 207-222. doi:10.17643/KJCE.2017.26.3.11.
- 우지윤 (2013). **대학 스포츠동아리 참여재미, 지각된 친구관계 질, 대학생활만족 간의 가설적 인과모형**.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유비 (2013). 청소년의 동아리 활동이 인터넷 게임중독 수준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5(2), 417-441.
- 유윤아 (2006). **결손가정의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또래관계**.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미자 (2012). **동아리활동이 청소년의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시 청소년수련시설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보람, 박혜준 (2016).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의 자기회귀교차지연효과검증. **아동학회지**, 37(6), 5-17. doi:10.5723/kjcs.2016.37.6.5.

- 이시연 (2019). 고등학생 시기 청소년활동이 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활동연구**, 5(3), 117-134. doi:10.36697/skya.2019.5.3.117.
- 이은정, 정은정 (2022).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이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개발 체험활동 참여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2(8), 597-606. doi:10.5392/JKCA.2022.22.08.596.
- 이응택, 오승근 (2021). 청소년 체험활동과 스마트폰과의존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연구**, 32(4), 35-63. doi:10.14816/sky.2021.32.4.35.
- 이인순 (2006). **청소년동아리활동이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호서대학교 여성문화복지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정민, 남아영 (2019). 학교부적응 청소년이 경험한 '관계 맺기' 양상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가정형 위(Wee)센터 입소생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5(5), 687-710.
- 이형실 (2014). 부모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또래관계 간 관련성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6(4), 75-83.
- 이호선 (2001). **아동의 또래관계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다혜, 김춘경 (2023).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 학업열의와 협동심의 병렬 이중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3(12), 623-633. doi:10.22251/jlcci.2023.23.12.623.
- 임효진, 최희철, 황매향 (2017). 초기 청소년기 또래애착, 자존감 및 삶의 만족의 종단적 교호적 예측력: 성별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초등교육**, 28(3), 151-172. doi:10.20972/kjee.28.3.201709.151.
- 임희진, 문호영, 정정호, 김평화 (2018).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V** (연구보고 18R-07).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장선경 (2011). **동아리활동 참여가 자아존중감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 한남대학교 사회문화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성민 (2023).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협동심 및 학업열의 간의 종단적 관계: 중학생과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교육방법연구**, 35(4), 647-670.
- 장영애, 이영자 (2015). 청소년의 행복감과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또래관계, 학업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청소년시설환경**, 13(4), 147-156.
- 장혜림, 이래혁 (2023).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부모-자녀 관계가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또래애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GRI 연구노총**, 25(4), 1-24. doi:10.23286/gri.2023.25.4.001.

- 정미선 (201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또래 관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 문화포럼**, 25, 140-170.
- 정민 (2017). 또래관계와 삶의 질 간의 관계에서 청소년 단체 활동의 조절효과. **인문사회** 21, 8(5), 1095-1112. doi:10.22143/hss21.8.5.61.
- 정병삼 (2010). 부모-자녀애착과 부모지도감독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변화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1(4), 5-30.
- 정영자, 이지혜 (2023). 성별에 따른 고등학생의 또래관계와 진로적응성의 관계: 자아존중감과 그릿의 이중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3(23), 703-719. doi:10.22251/jlcci.2023.23.23.703.
- 정현태, 최혜련, 최장호 (2011). 대학 동아리 활동에 따른 여가만족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46, 619-629.
- 조선영 (2017). 무용교육 참여 초등학생의 자기효능감이 자아존중감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용과학회지**, 34(4), 55-67. doi:10.21539/ksds.2017.34.4.55.
- 조수영 (2015). 청소년의 여가활동에서 비행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근거 이론적 접근. **청소년 문화포럼**, 44, 97-124.
- 조춘범, 김동기 (2010). 청소년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의 자기회귀교차지연 효과검증: 성별간 다집단 분석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2(4), 207-229.
- 차정원, 이형실 (2014). 청소년의 가족환경 및 또래환경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6(3), 53-67.
- 최동성 (2003). **청소년 동아리활동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정아 (2014).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또래관계, 우울 간의 종단적 관계.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2014(11), 377-378.
- 최형임, 이재성, 문영경 (2012). 청소년의 동아리활동 만족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미래청소년학회지**, 9(1), 23-45.
- 최혜림, 홍혜인, 김훈호. (2019).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요인 분석-고등학교 동아리 활동을 중심으로. **교육연구**, 33(2), 95-125.
- 추상엽, 임성문 (2010). 고등학생의 친구관계와 우울 간 자기회귀 교차지연 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17(11), 335-357.
- 하문선 (2018) 대학생의 성역할 잠재집단 유형과 성별, 자아존중감, 우울의 관계. **학습자중심 교과교육연구**, 18(20), 145-163. doi:10.22251/jlcci.2018.18.20.145.
- 한유경, 정성수, 김성기, 정제영 (2012). 초·중등학생의 동아리활동과 봉사활동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분석. **중등교육연구**, 60(4), 1229-1254. doi:10.25152/ser.2012.60.4.1229.

- 허철수, 강옥련 (2010). 동아리활동 참여 청소년과 미참여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비교. *청소년 복지연구*, 12(3), 25-46.
- 홍경자 (2004). *청소년의 인성교육*. 서울: 학지사.
- 황재원, 고흥월 (2023). 청소년의 학년 변화에 따른 자아존중감, 또래애착, 학교생활적응의 종단적 상호 영향 분석. *인문사회* 21, 14(1), 619-634. doi:10.22143/hss21.14.1.44
- Bailey, J. A. (2003). The foundation of self-esteem. *Journal of the national medical association*, 95(5), 388-393.
- Bartko, W. T., & Eccles, J. S. (2003). Adolescent participation in structured and unstructured activities: A person-oriented analysi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2(4), 233-241. doi:10.1023/A:1023056425648.
- Blomfield, C., & Barber, B. (2010). Australian Adolescents' Extracurricular Activity Participation and Positive Development: Is the Relationship Mediated by Peer Attributes?. *Australian Journal of Educational & Developmental Psychology*, 10, 114-128.
- Chapin, L., Deans, C., & Fabris, M. (2019). *After film club, I actually got better at everything: School engagement and the impact of an after-school film club*.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98(C), 10-16, doi:10.1016/j.childyouth.2018.11.057.
- Dawes, N. P., Pollack, S., & Sada, G. G. (2017). Key components of engaging after-school program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In N. L. Deutsch (Ed.), *After-school programs to promote positive youth development: Integrating research into practice and policy* (pp. 13-21).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doi:10.1007/978-3-319-59132-2\_2.
- Gorrese, A., & Ruggieri, R. (2013). Peer attachment and self-esteem: A meta-analytic review.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5(5), 559-568. doi:10.1016/j.paid.2013.04.025.
- Hayes, A. F. (2017).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Guilford publications*.
- Fredricks, J. A., & Eccles, J. S. (2006). Extracurricular Involvement and Adolescent Adjustment: Impact of Duration, Number of Activities, and Breadth of Participation. *Applied Developmental Science*, 10(3), 132-146. doi:10.1207/s1532480xads1003\_3.

- Knifsend, C.A., Green, L.A., & Clifford, K. L. (2020). Extracurricular participation, collective self-esteem, and academic outcomes among college students. *Psi Chi Journal of Psychological Research, 25*(4), 318-326. doi: Extracurricular participation, collective self-esteem, and academic outcomes among college students.
- Kort-Butler, L. A., & Hagewen, K. J. (2010). School-Based Extracurricular Activity Involvement and Adolescent Self-Esteem: A Growth-Curve Analysi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0*(5), 568-581. doi:10.1007/s10964 -010-9551-4.
- Kort-Butler, L. (2012). *Extracurricular Activity Involvement and Adolescent Self-Esteem*, The Prevention Researcher, *19*(2), 13-16. doi:10.1037/e535002013-004.
- Loder, T. L., & Hirsch, B. J. (2003). Inner-city youth development organizations: The salience of peer ties among early adolescent girls. *Applied Developmental Science, 7*(1), 2-12. doi:10.1207/S1532480XADS0701\_1.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ABSTRACT

### The effect of club activities of youth on peer relationship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Wui, Aerim\* · Yoon, Chaeho\* · Choi, Jeongwook\* · Lee, Eungtae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firm how club activities in adolescence affect peer relationships, and the role that self-esteem plays as a mediating effect in club activities and peer relationships. What activities are necessary for adolescents to form close and supportive relationships between their peers? This study started with the question of what kinds of activities exist for adolescents and their peers? To this end, data from the 5th year of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 (KCYPs 2018) of the Korea Youth Policy Institute were used, and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comprised of 2,311, 1,155 male students and 1,156 female students. The analysis examined the issue as to whether club activities affect peer relationship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verify whether self-esteem has a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lub activities and peer relationships. The significance of the mediating effect was verified by using the Hayes Process Macro model 4, and bootstrapping was performed. As control variables, gender, depression, cooperation, social withdrawal, and parental attitude variables were set and input.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youth club activities have a positive effect on peer relations. It was confirmed that the experience of club activities in adolescence is not just about sharing hobbies, but it is helpful in promoting peer relationships as a means for adolescents to understand, respect, and experience interactions with each other. Second, it was found that self-esteem had a mediating effect in youth club activities and peer relationships. In other words, club activities during adolescence are important activities that help adolescents improve their self-esteem by gaining confidence through a sense of accomplishment and various experiences. Through this, it can be seen that club activities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formation of peer relationships through self-esteem. Based on these results, the importance of club activities was presented in various ways for smooth peer relations during adolescence, and from a macroscopic point of view, a guidance management support system for youth club activities and a more active governmental policy support plan were proposed.

**Key Words:** club activities, peer relationships, self-esteem, KCYPs 2018

---

\* Department of Youth Education and Counseling, Graduate School, Gwangju University

\*\* Professor, Department of Youth Counseling and Lifelong Education, Gwangju University